

## 연해주(沿海州) 거주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 및 한국 단기선교팀과의 협력방안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4기 훈련팀<sup>1</sup>

<sup>1</sup>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4기 훈련팀에서 2007년 7월 5일부터 2007년 7월 26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거주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사역 및 한국 단기선교팀과의 협력방안을 조사한 내용이다. 조사팀은 김성아(언론정보문화학부 '06), 김주완(전산전자공학부 '03), 박동주(언론정보문화학부 '01), 박한나(국제어문학부 '06), 송강민(글로벌리더십학부 '07), 윤찬주(국제어문학부 '04),정은진(생명식품과학부 '04), 지영준(글로벌리더십학부 '07) 이상 8명으로 구성되었다.

# I. 조사설계

## 1. 조사의 필요성

한국은 전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이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온 분단은 이미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경제적 발전을 거듭한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1998년, 300만여 명이 아사하였고, 그 후로 이어졌던 홍수와 가뭄은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은 1998년 이후부터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 그 결과 중국 지린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이하 연변)를 중심으로 많은 탈북자 은신처(shelter)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지역은 은밀하면서도 실제적인 북한선교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은 2007년 현재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국가나 북한은 복음화율이 1% 미만이고 5년 연속 기독교 박해를 1위<sup>2</sup>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복음적 상황은 남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복음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고 지속적으로 북한선교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시대적·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주로 중국 연변의 탈북자들과 북한선교방안을 주제로 연구하던 본 조사팀은 북한선교사역과 이에 대한 대부분의 협력 및 조사가 중국 연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연해주(沿海州 또는 Primorski, 이하 연해주)<sup>3</sup>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과 연결되는 관문 지역인 연해주는 탈북자와는 달리 합법적인 출국 허가를 받고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북한인들을 보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은 합법적으로 북한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러시아인과 고려인<sup>4</sup>을 통한 북한선교가 실제로 가능한 곳이다. 이에 본 조사팀은 연해주 거주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 및 한국 단기선교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오픈도어즈미션통계조사([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에서 실시한 기독교 박해를 조사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 오픈도어즈미션통계조사는 복음의 제한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억압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국제선교단체이다.

3 연해주는 러시아 시베리아 동해 연안에 있는 주로써 면적은 약 16만 5,900km<sup>2</sup>이고 인구는 약 206만 8,000명이다. 수도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이고 주요도시로는 블라드보스토크, 나홋카(Nakhodka), 파르티잔스크(Partizanski), 우수리스크(Ussuriysk) 등이 있다.

4 러시아(Russia), 우크라이나(Ukraine), 벨로루시(Belarus), 몰도바(Moldova), 카자흐스탄(Kazakh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그루지야(Gruziya) 등 독립국연합 내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러시아어로는 까레이스키라고 하며, 고려족 또는 고려사람이라고도 한다.

## 2. 조사의 목적

(1) 북한선교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 및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중국 연변보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연해주의 북한선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해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이 가능한 고려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2)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현황과 한국 단기선교팀의 북한선교 방안 및 현지 선교사님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장차 이 지역, 해당 주제의 선교 관심자들에게 실제적인 선교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러시아 연해주 거주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제목을 도출하고 한국 교회들에 그것을 전달하여 연합 기도사역의 밑거름이 되며 현장선교의 동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 3. 조사 지역

러시아 연해주 4개 도시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팀이 이 4개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문도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내륙이나 북한으로 왕래하게 될 때 반드시 거쳐 가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재외 북한 노동자들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4개 도시는 만주 등지로 이주했던 고려인의 재이주 정착지이며, 교회를 통한 고려인 양육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4개 거점 도시를 조사하였으나 보안상 해당 도시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4. 조사 주제

연해주 거주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 및 한국 단기선교팀과의 협력방안

## 5. 조사기간: 2007년 7월 5일 ~ 2007년 7월 28일<sup>5)</sup>

---

5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7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동안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조사 강의, 예배, 말씀 양육, 캠프 2회, 조사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

## 6. 조사인원

###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북한접경지역 현지조사팀 8명<sup>6</sup>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김성아	언론정보문화학부 (06)	디렉터, 미디어부원
2	김주완	전산전자공학부 (03)	예배부원
3	박동주	언론정보문화학부 (01)	문서자료부장
4	박한나	국제어문학부 (06)	문서자료부원
5	송강민	글로벌리더십학부 (07)	미디어부장
6	윤천주	국제어문학부 (04)	예배부장
7	정은진	생명식품과학부 (04)	총무부원
8	지영준	글로벌리더십학부 (07)	총무부장

## 7. 조사방법

### (1) 사전 조사

#### 1) 문헌조사

① 인터넷 조사: [www.riss4u.net](http://www.riss4u.net)<sup>7</sup> 외

② 문헌조사: 국제지역연구소 (2007) 『선교지역연구보고서』

기독교문사 (1986)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4권』

김나탈리아 (2004)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사회 특성에 관한 연구: 독일인 디아스포라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김병철 (2002)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민,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2005) 『러시아 극동을 주목하

사, 팀워크 훈련, 역할집중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6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팀 중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7 [www.riss4u.net](http://www.riss4u.net)은 교육인적자원부 출연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다.

라』

윤여상 (1999) 『재러시아 북한 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이광규 (1998)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재외한인연구 (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태정규 (2003)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외

## 2) 인터뷰

① 한동대학교 김미영 교수<sup>8</sup>

## (2) 현장 조사

### 1) 관찰조사

① 러시아 연해주 A<sup>9</sup> 교회 외 6곳

② 러시아 연해주 B 단체 외 3곳

### 2) 인터뷰

① 전문가 인터뷰 - 러시아 연해주 C선생님 외 9명

② 일반인 인터뷰 -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청년 D 외 17명

## 8. 조사의 성과와 한계점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해 조사를 해 온 본 조사팀은 북한지역과 이에 대한 협력 및 조사가 중국 연변에 편중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인 러시아 연해주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러시아 연해주가 앞으로 북한선교에 새로운 전략들을 제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러시아 내 북한선교에 대한 조사와 보고자료의 희소성을 생각할 때, 본 보고서는 러시아 내 북한선교 현황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조사팀은 학생 신분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과의 접촉이 쉬웠고, 오히려 전문적인 조사팀이 알 수 없는 내용도 조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연해주 거주

8 한동대학교 에디슨아카데미학부 김미영 교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기관지 편집장 겸 홍보실장,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 조선일보 편집국 북한담당 기자를 역임한 북한전문가로서 본 조사를 위해 사전 인터뷰하였다.

9 북한선교의 보안상 본 보고서에서 밝혀지는 모든 인명, 도시명 및 단체명, 그리고 그 외에 보안이 필요한 용어는 영어 알파벳 A~Z(그 이후는 AA~ZZ)로 표기하였다.

고려인의 정체성과 남·북 관계에 대한 그들의 의식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의 가능성과 그 효용가치를 보고 북한선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의 성과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연해주 거주 북한인의 현황과 북한선교에 대한 최근 자료의 부족으로 사전조사가 미비하였다. 둘째, 학생 신분으로 진행된 조사였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현지 사역자들의 인터뷰와 사후 조사를 통해 최대한 보완하였다.

## II. 들어가는 말

1998년 ‘고난의 행군’ 이라고 불리는 식량난 이후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들 탈북자들은 북-중 접경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언어의 장벽이 없는 연변에 은신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 지역은 북한선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연변에 비하여 북한과 국경을 맞댄 또 하나의 지역인 러시아 연해주 거주 북한인들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대부분이 탈북자로 은신생활을 하는 연변의 북한인과는 다르게 연해주에 거주하는 북한인들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노동자 또는 유학생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연해주는 북한인 노동자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사역자들이 북한인 노동자와 직접 만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연해주의 북한선교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해주 거주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가 매우 효과적인 선교전략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해주는 고려인의 재이주 정착지로서 고려인 양육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 북한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지역으로서의 중요성도 갖는다. 위와 같이 북한선교에 대한 연해주의 중요성은 이제까지 이루어지던 북한선교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07학년도 1학기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북한접경지역 현지조사팀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4개 도시를 방문하여 연해주 거주 고려인의 상황 및 북한선교의 현황들을 조사하고 한국 단기선교팀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III. 연해주에서의 북한선교 현황

#### 1. 연해주 거주 북한인들의 상황



〈그림Ⅲ-1〉 연해주 북한주변지역

〈그림Ⅲ-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러시아 시베리아 동해연안에 있는 연해주는 중국,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역으로써 북한을 둘러싼 동아시아 및 세계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해주에는 12,000~13,000여 명의 북한인들<sup>10</sup>이 주로 벌목공과 건설노동자의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더불어 많은 수의 북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연해주 내 탈북자의 수는 200~3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1</sup> 이들은 주로 북한의 합법적인 노동자 출신으로, 법적 체류기간인 3년이 지난 후 북한으로의 귀환명령에 거부하는 방식으로 탈북하여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게는 몇십 명, 크게는 백여 명이 모여 난민촌을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들 중에는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달리 연해주 거주 북한난민을 제외한 합법적인 북한인 노동자 및 유학생들은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우수리스크와 하마로브스크, 핫산 등 연해주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고 3~4명이 무리를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의 귀환을 거부하거나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우 투철한 사상을 가진 평양 출신의 30~50대 남성을 노동자로 선발한다. 같은 이유에서 노동자의 또 다른 조건은 북한 내에 안정적인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도 러시아로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기준을 갖고 노동자를 선발한다. 연해주에는 이러한 노

10 1999년 한국정치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인 ‘재러시아 북한 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에서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다. 첫째, 외교관, 상사원 그리고 적법절차에 따라 송출된 노동자들과고, 둘째, 불법적으로 작업장과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작업장과 근무지로 돌아가서 북한으로의 귀환이 가능한 자들이다. 셋째, 불법적인 탈출과 장기간의 탈출로 북한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하거나 한국행을 희망하는 자들로 분류하였다.

11 1999년 한국정치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인 ‘재러시아 북한 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에 따르면 러시아 내 탈북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00~3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자뿐만 아니라 북한출신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미래의 북한을 이끌어 갈 북한 내 최상위 계급의 국비 유학생들이다. 북한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연해주 거주 북한인 중에서도 이들에 대한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2. 연해주에서의 북한선교 현황

### (1) 직접적 사역<sup>12</sup>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북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

#### 1) 북한 내에서의 직접적 사역

한국인들은 북한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법적 제재로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제3국의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3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 또는 외국인들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정부의 철저한 감시 하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내 사역은 복음을 직접 전파하기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위에서 제시한 직접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외에도 사업 또는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역시 북한선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 [사례1] E사역자의 북한 내에서의 경제적 사역

E사역자는 한국인으로 F 국 유학생할 중 F 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후 북한선교를 위하여 F 국 국적으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고, 북한에 정기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 내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은 전파할 수는 없으나 북한 노동자들과 관리들을 꾸준히 만나 교제하고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한 복음전파의

12 2007년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에서 발간한 선교지역연구보고서의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3기 훈련팀이 작성한 조·중집경지역에서의 북한선교 사역현황과 단기선교 사역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선교를 위한 사역의 2가지 유형에 기초하여서 직접적 사역과 간접적 사역으로 나누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적 사역은 조(朝)·중(中) 집경 지역 또는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 또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간접적 사역은 조선족 및 한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북한선교의 자원으로 양육하는 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중집경지역에서의 북한사역현황 정리를 위한 위의 정의에서 선교지역 및 민족의 개념을 다르게 적용하여 직접적 사역과 간접적 사역의 의미를 참조하였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2) 북한 외에서의 직접적 사역

북한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사역은 북한접경지역이나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보다는 비교적 미비한 상황이지만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북한선교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연해주의 대부분 북한사역이 한국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역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국적을 가진 고려인들 또는 러시아인들과 협력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 사역은 북한인들과의 합법적 접촉점으로 사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구 소련 시절에 공산권 사회에서 생활한 러시아인들과 북한인들 사이에는 정서적 동질감이 형성되어 있어 북한인들의 심리적 반감을 줄여줄 수 있는 선교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 [사례2] G사역자의 연해주에서의 북한사역

G사역자는 연해주 거주 북한 벌목공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직접적 사역을 하고 있다. 3~4명씩 그룹을 지어서 조직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고려인이나 러시아인을 중개인으로 세워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G사역자의 선교방법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북한 노동자들에게 밥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사역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보다 상당히 높은 러시아 물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G사역자는 이러한 북한 노동자들에게 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조금이나마 충당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북한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화장실 이용료를 지불하는 사역이다. 러시아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이용자는 5루블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북한 노동자에게 5루블은 상당한 액수인데, 이러한 북한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중화장실 이용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 셋째, 북한 노동자들에게 러시아어 회화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처음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부족한 러시아어 구사능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어 회화책자를 배포하는 사역은 이러한 북한 노동자들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이 회화책자에는 기본회화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회화책자에 대한 소문이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책자를 얻기 위해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쪽복음<sup>13</sup>을 전해주고 있다. 보안상 위험이 따르는 사역방법이지만 직접 성경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북한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인의 언어를 통해서 만든 전도책자(부록 1)를 나누어주는 사역이다. 이 전도책자는 한국어에 비해서 북한인들이 쓰는 말과 비슷한 고려인들의 언어로 만들어져서 한국인들에 대한 북한인들의 반감을 줄여주고 심리적으로 접근도를 높여주어서 선교의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 [사례3] H사역자의 연해주지역에서의 북한사역

러시아인인 H사역자는 연해주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H사역자는 러시아인이지만 북한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북한선교를 위한 사역을 교회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H사역자가 하고 있는 북한사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소개된 G사역자와 연계한 사역이다. H사역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선교활동 중 하나로 G사역자의 다섯 가지 북한 노동자사역을 돕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적을 가진 H사역자의 신분상 위치가 G사역자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의 전달 사역이다. H사역자는 연해주 및 러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러시아 교회들에게 북한을 위한 기도제목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대상 교회를 더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 넘어오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사역이다. 연해주에서 합법적으로 최대한 오랜 기간 거주하며 노동하고자 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면서 그들을 돕고 있다. 넷째, 북한으로의 풍선 복음 사역이다. 남서풍을 이용해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풍선 복음<sup>14</sup>을 날리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H사역자와 같이 러시아 국적을 이용한 북한사역은 북한 외에서의 북한선교 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고 한국 사역자들과의 협력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2) 간접적 사역

북한인들이 아닌 제3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들을 북한선교의 사역자로 양육하는 사역

13 겔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고 작아서 숨기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한국어 성경책이다.

14 풍선에 성경구절이나 사영리 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서 바람에 날려 보내는 방법이다.

### 1) 고려인을 통한 사역

연해주 거주 고려인은 4만여 명에 이른다.<sup>15</sup> 206만 명이 넘는 연해주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한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선교를 위한 고려인들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인들보다 연해주 거주 북한인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북한인들의 사회·문화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상적·정서적인 면에서도 더 친밀한 편이다. 이러한 이점을 지닌 고려인 기독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북한선교를 감당케 하는 간접적 사역방법이 한계가 많은 북한사역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훈련된 고려인들과 연해주의 한국인들과의 협력방안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 2) 러시아인<sup>16</sup>을 통한 사역

앞의 H사역자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러시아인들도 물론 그 수는 비교적 적지만 북한선교에 큰 관심이 있었다. 연해주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이 북한선교적



〈그림Ⅲ-2〉 고려인 청년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H사역자가 속해 있는 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한 러시아인들 사역방법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진 영향력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sup>17</sup> 러시아인들을 통한 북한선교사역을 위해서는 러시아인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조선족<sup>18</sup>을 통한 사역

연해주 중국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연해주에서 중국인 거주를 제한하면서 연해주 거주 조선족은 최근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북한인들과 언어와

15 2005년 8월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고려인 분포현황에 나타나 있다.

16 보고서의 흐름을 보면 고려인을 제외한 러시아인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인이 러시아인을 통한 사역의 대상이다.

17 러시아 종교현황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56.3%이다. 하지만, 이 현황 대부분은 러시아정교회이고 개신교는 0.7% 정도이다. 이는 러시아정교는 물론 8.7%의 이슬람교에 비해서 못 미치는 수치이다.

18 중국 동베이(東北) 지방의 라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삼성(三省)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족(韓族)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들이다.

## 연해주 거주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 및 한국 단기선교팀과의 협력방안

생김새가 비슷한 조선족은 북한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연해주 거주 조선족의 경우 한민족으로서의 인식이 전체적으로 고려인들보다 높아서 이들을 통한 북한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IV. 연해주 거주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

### 1. 고려인 일반

#### (1) 역사

##### 1) 러시아 고려인의 역사

러시아 고려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1860년 연해주 포세트(Pos'et)<sup>19</sup>에 한인 13가구가 최초로 이주하게 되었고 1863년부터 한인의 연해주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69년에는 한반도 북녘 대기근으로 이주가 급증하여 1만여 명으로 연해주 거주 한인이 증가하게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연해주지역은 의병들의 기지로 사용되었고 1908년 1,451건의 의병활동이 일어났으며 그 참가인원이 무려 6만 9천8백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sup>20</sup> 후 한인이민이 급증하게 되었고 1914년에는 연해주지역 교민의 수가 6만 3천여 명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sup>21</sup>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1918년 일본군이 연해주를 점령하게 되고, 1937년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서 고려인 대부분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된다.

##### 2)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배경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는 19세기 후반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기인한다. 당시 러시아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소유지 및 세금과 관련된 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조선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소작농에 대한 봉건 지주들의 가혹한 수탈이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러시아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러시아로의 이주가 촉발되는 상황에 이른다. 1860년 이전에는 조선에 이주자 징벌법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의 이주는 목숨을 걸고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그래서 초기 고려인 이주는 대부분 조선 함경도의 농민과 어민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869년 연해주지역 우수리스크로 조선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있는 후 고려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894~95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19 블라이보스토크 남쪽의 항구.

20 '한일합방'을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수차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

21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한인 이민촌.

조선 내 일본의 권력이 확장되는데 이러한 정치적 이유 역시 러시아 이주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1884년 조선의 이주자 징벌법이 폐지되고 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에는 러시아에서의 조선인 계절노동자가 출현했는데 이러한 계절노동자<sup>22</sup> 역시 러시아에 정착하여 고려인이 되었다.

### 3) 러시아 이주 이후 고려인의 삶

러시아 이주 이후 고려인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1890년대 초반 러시아정부는 고려인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남성 1인당 15제사치나<sup>23</sup>의 토지를 지급하였고, 토지를 지급받지 못한 고려인에게는 일정기간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 일부 고려인은 시베리아철도<sup>24</sup> 공사나 건축공사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금광 채굴 작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정부의 소수민족 러시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세기 초기에는 고려인의 직종이 다양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려인 사이에서도 사회적인 계층이 형성되었는데 특히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엘리트 계층이 나타났고 의사, 교사, 종교 지도자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 (2) 현황

### 1) 연해주로의 재이주 실태



〈그림 IV-1〉 고려인 분포현황

1937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스탈린 정권은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 (Kazakhstan)과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으로 강제이주 시키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주제한조치를 내렸다. 16년 후인 1953년 고려인에 대한 거주제한조치가 해제되면서 〈그림 IV-1〉<sup>25</sup>에서

22 일의 분량이 계절의 영향으로 크게 달라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23 1제사치나는 1.0925헥타르이다.

24 1850년대 극동지방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고 시베리아로의 주민이주와 대 중국무역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베리아철도공사는 1891년 3월 착공되면서 시작되어 1916년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독일인, 러시아인들과 함께 고려인들이 이 공사에 근로자로 참여하였다.

25 2005년 8월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고려인 분포현황이다. 이는 고려인들가운동본부([www.koreis.com](http://www.koreis.com))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보는 것과 같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주변국인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우크라이나(Ukraine), 북카프카스(North Caucasus) 등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고려인은 농업을 바탕으로 자립 정착에 성공하였고 타 소수 민족들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구 소련의 해체와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각 국가의 토착 민족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이후 중앙아시아 내 독립국가들이 자국의 잃었던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면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각 국가는 자국의 언어만을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착 민족을 제외한 많은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언어적 장벽 때문에 실직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은 대부분이 공무원, 교사, 의사 등과 같은 사무직 또는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피해서 고려인들은 과거 자신의 조상이 거주하던 러시아 연해주 등지로 재이주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인들의 재이주 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연해주로 재정착 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분포현황<sup>26</sup>

현재 고려인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그림IV-1>의 지역별 고려인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1937년 강제이주 당시의 고려인 정착지였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각각 10만, 19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연해주와 사할린은 최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의 재이주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 (3) 러시아 내 위치

러시아 내 고려인 중에는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엘리트계층이 일반 러시아인들과 비교하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I 고려인 단체 대표는 러시아 내 대학생 중 유대인 다음으로 많은 수가 고려인이라고 하여 고려인들의 높은 교육열을 설명하였다. 연해주지역 NGO 단체인 J 단체에서는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성실하고 근면한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재이주를 하는 고려인들은 많은 수가 농업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의 농업 생산력은 러시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였다. 농업 분야 외에도 유통업과 타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다.

26 2005년 8월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고려인 분포현황이다. 이는 고려인돕기운동본부([www.koreis.com](http://www.koreis.com))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 (4) 고려인과 디아스포라<sup>27</sup>

러시아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은 러시아의 교육과 문화를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에 한민족 역사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K 단체 고려인 청년<sup>28</sup>은 이제까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고 한국인과 외모는 닮았지만 문화와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과 러시아가 축구경기를 하면 당연히 러시아를 응원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고려인 청년은 소위 백인 러시아인과는 관습이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한 러시아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러시아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고려인이라고 하였다. 조사팀이 만난 대부분 고려인 청년들이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고 고려인 청년들에게 한민족의 일원으로서의 동질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NGO 단체인 L 단체 직원은 고려인들이 한민족에 대한 동질감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젊은 고려인 층에 한민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들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언어와 한민족에의 정서가 끊어져 가고 있다고 하였다. L 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고려인과 조선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한민족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국적을 가진 채 러시아인 일부로 살아가는 연해주 거주 대부분 고려인과는 다르게 사할린에 거주하면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가는 일부의 고려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면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2. 북한선교에 있어서 고려인의 중요성

### (1) 연해주 내 고려인의 중요성

북한선교를 위한 간접적 방법이 중국에서는 조선족을 통하여,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북한선교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27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국을 떠나 망향의 슬픔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의 경우를 말한다. 최근 사회이론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돼 전쟁 난민뿐 아니라 해방 전 한국을 떠난 재중, 재러, 재일 동포도 일컫는다.

28 본 조사팀은 한민족에 대한 고려인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해주의 M 교회에 소속된 18명의 고려인 청년들을 집단으로 인터뷰하였다. 그들의 연령대는 19~34세이다.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고려인의 경우는 러시아 연해주에 건축 공이나 벌목공의 신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하러 온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 연해주 거주 북한인들의 북한 내에서의 사회적 위치가 중국 연변거주 북한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때 그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해주에는 12,000~13,000여 명의 북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들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재러 북한인의 경우 한국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현지 한국 사역자들과 만났을 경우 만년 북한인과 한국인 사역자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반면 고려인의 경우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들과의 만남이 한국인에 비해서 자유롭다. 비록 대부분의 고려인이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서상 자신들을 한민족보다는 러시아인에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자신들과 북한인이 외모상으로 비슷하다는 동질감이 잠재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북한인들의 경우 아직 한민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고려인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타 러시아인들보다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이 붕괴하기 이전의 공산주의국가였기 때문에 고려인들에게는 북한인들과의 사상적 친밀감도 형성되어 있다. 고려인과 북한인 사이의 이러한 친밀감은 북한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 (2) 한국 내 고려인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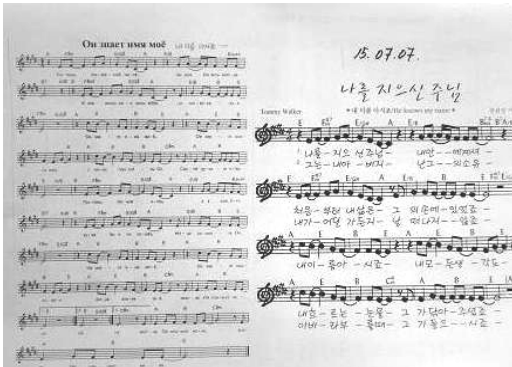
M 교회 한 청년은 한국이 아름다워서 좋지만 그것 외의 별다른 관심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님들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고려인 청년 중에도 한국에 자주 왕래하면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려인은 북한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에게 거리상으로 먼 연해주뿐만 아니라 가까운 한국의 고려인들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선교의 중요한 자원인 이들을 한국에서 전도 및 양육하여 다시 연해주로 보내는 방법은 연해주에서 벌어지는 북한선교를 위한 활동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러시아 내 북한선교 중 고려인을 통한 선교 방법은 북한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는 한국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 (1) 고려인 선교의 실례

### 1) N 교회



〈그림IV-3〉 한국어/러시아어 찬양 악보

악보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성가대 찬양을 하는 등 고려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던 고려인 성도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N 교회의 노력은 한민족에 대해서 있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그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들 중 몇 명을 교회 리더로 양육시키고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 N 교회 청년 중 한 명은 교회의 후원으로 한국에서 신학 대학에 다니고 있고 한국의 N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10~15명의 고려인 성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한다. 대부분 노년층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한국에 가고 싶어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년층 고려인들이 N 교회의 한국 방문 행사를 통하여 한국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N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노년층 고려인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육되고 있다. 이와 같이 N 교회의 한국 방문 행사는 노년층 고려인들을 위한 선교의 접촉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 2) P 교회

P 교회는 1994년 한국인 사역자가 개척한 연해주 최초의 교회이다. 연해주 대부분 교회는 한국인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끝까지 사역하거나 후임으로 다른 한국인 사역자가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P 교회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 후 한국인 사역자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가고 P 교회에서 양육

받은 고려인 사역자가 교회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고려인 사역자는 러시아와 한국에서 신학을 하였고 2003년부터 P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인 사역자에게만 의존하던 연해주의 기존 교회와는 달리 고려인 리더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 3) Q 교회

Q 교회는 1993년 설립되었다. Q 교회를 개척한 한국인 사역자는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였다. Q 교회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외에 고려인을 양육하고 러시아 각 지역으로 파송하여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이 중 두 가정은 R 선교 훈련 단체에서 훈련 중이다. 이는 한국인 사역자를 통해서 연해주 고려인과 러시아인들을 양육하여 러시아 복음화에 힘쓰는 선교 활동의 좋은 예이다. 또한, 한글 교육이라는 고려인 대상의 선교 접촉점을 잘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4) S 교회

S 교회에서는 고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교육 사역, 의료 사역, 농업 사역이 있다. 첫째, 교육 사역으로는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T 시에 국제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둘째, 의료 사역으로 U 병원을 돕는 사역이다. 하지만, 의료 사역은 담당하던 한국인 사역자가 철수했기 때문에 현재 중단되었고 이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가 필요한 상태이다. 셋째, 농업 사역은 V 농장과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이후 농사에 실패한 고려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농업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집단 농장에 한국식 비닐하우스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농사 기법을 전수하고 고려인들에게 농업을 장려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농장 사역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서 올해까지 16개의 고려인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와 교육, 의료, 농업 사역을 연계한 선교 방법은 고려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필요를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교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2)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 제언

### 1) 고려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

W 교회 고려인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려인들이 가진 북한과 북한인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고려인 청년들은 북한과 북한인들에 대해서 대체로 안타깝거나

불쌍하다는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상의 마음은 없으며 북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고려인 청년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북한과 북한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W 교회 고려인 청년들의 리더인 한국인 사역자 X는 그들이 가진 이러한 무관심의 가장 큰 이유를 역사와 한민족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들었다.

## 2) 고려인 양육을 통한 북한선교

연해주 교회에서 고려인을 양육하여 그들에게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고려인 선교와 그들을 통한 세계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그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북한인들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고려인들이 가진 북한선교의 이점들을 고려해볼 때 효과적이고 중요한 북한선교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써 Y 교회 청년을 들 수 있다.

### [사례1] Y 교회 청년

Y 교회는 고려인 청년 중 북한선교에 비전이 있는 청년 리더를 양육하고 있다. 이 청년은 교회 개척과 목회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연해주 Y 교회에서 한국의 신학 대학교를 추천해주고 신학 공부를 위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 체계적인 양육을 위해 한국 교회를 연결해 주고 있다.

## 3) 고려인 리더계층의 중요성

연해주 거주 고려인 중에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엘리트 계층이 많은 편이다. 고려인 리더계층은 연해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한의 고위 관료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인 리더들을 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북한선교를 위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서 연해주 고려인 리더인 Z씨를 들 수 있다.

### [사례2] 고려인 리더 Z씨

고려인 리더 Z씨는 연해주 고려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러시아, 한국, 북한과 관련된 행정적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고려인 리더로서 북한의 고위 관료들과 만날 기회가 많은 상황에서, 그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발전되었을 때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려인 리더 Z씨가 가진 연해주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올바른 선교적 신념을 지닌다면 그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 V. 연해주 북한선교를 위한 한국 단기선교팀과의 협력방안

먼저, 북한선교를 위해서 한국 단기선교팀이 협력 사역하기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인들과 북한의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중국 연변의 도문(圖們)<sup>29</sup>, 단둥(丹東)<sup>30</sup> 등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땅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연해주 또는 하산<sup>31</sup>에서 북한을 직접 보고 땅 밟기 사역을 할 수 있다. 혹은 연해주 주요 도시 역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볼 기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 단기선교팀원들의 마음속에 북한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 1. 협력 사역<sup>32</sup>



〈그림 V-1〉 연해주 풍경

한국 단기선교팀이 연해주에 가서 현지 사역자 및 교회, 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안이 있다. 현지교회와의 협력방안인 교회사역, 농장사역 그리고 고려인 단체와 연계한 문화사역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역들은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연해주에 직접 가는 단기선교팀이 꼭 담당해야 할 것들로써 그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 (1) 현지 교회 및 단체 방문

29 중국 지린성(吉林省) 동쪽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도시로써 두만강을 건너 북한의 남양(南陽)과 마주하는 국경도시이다.

30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에 있는 도시로써 압록강 하부 신의주 대안에 자리하며 신의주와는 철교로 연결되어 있다.

31 러시아 연해주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러시아·중국·북한 3국의 접경지대이다.

32 2007년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에서 발간한 선교지역연구보고서의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3기 훈련팀이 작성한 조·중접경지역에서의 북한선교 사역현황과 단기선교 사역방안 보고서에서 분류한 2·3주 단기선교팀이 북한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북한에 대한 마음 품기, 협력 사업, 동원 및 지속적 중보기도)에 단기선교팀이 북한 사역자와 협력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 1) 교회사역

연해주 현지교회의 사역을 돕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단기 선교팀은 교회 행사가 가장 많은 기간인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에 선교지역에 나간다. 따라서 이 기간에 선교지역을 가는 단기 선교팀의 경우 현지 교회의 여름·겨울행사를 도울 수 있다. 본 조사팀은 연해주 AA 교회의 청년들과 1박 2일의 수련회를 함께 다녀오는 방법으로 현지 교회의 사역을 행한 바 있다.

### 2) 농장사역

연해주 농장의 제반 사역을 돕는 방안이다.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고려인이 운영하는 농장 중에는 북한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곳들이 있다. 이러한 농장에 방문하여 농장사역을 하는 것도 단기 선교팀이 할 수 있는 북한선교사역 방안 중의 하나이다. 비단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농장이라도 농장관련 고려인 및 러시아인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려인 및 러시아인을 통한 간접적 선교사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팀이 다녀온 연해주 AB 농장의 경우 한국에서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지닌 단기선교팀이 방문할 때 그들의 농장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3) 문화사역

연해주 고려인 단체들과 문화적 교류를 통한 선교 사역 방안이다. 러시아인들은 문화생활 수준이 높고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에게 있는 이러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복음적 메시지를 갖춘 문화 콘텐츠(Culture Content)<sup>33</sup>를 개발하여 문화 공연 및 사역을 하는 것도 고려인 및 러시아인을 통한 북한선교의 간접적 사역 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풍물, 교회 합창단, 오케스트라 팀, 위십 팀 등의 문화 콘텐츠를 가진 한국 단기선교팀의 연해주 문화 사역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큰 효과적인 선교 방안의 예가 될 것이다.

### 4) 언어교육사역

현재 연해주 지방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NGO 단체나 우수리스크(Ussuriysk) 국립사범대학의 한국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대전대학교와의 자매결연으로 한국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의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기독교적 마인드를 갖춘 한국어 교육

33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변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말한다.



센터는 없는 상태이고, 교회나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기 선교팀이나 단기 사역자가 한국어교육사역자로 사역하며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협력 사역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 5) 청년교류사역

선교적 관점에서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 청년들과 러시아 청년들, 그 중에서도 고려인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한 선교사역 방안이다. 이러한 기독교 청년들의 교류를 통해 양국 청년들은 서로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의 교류는 북한에 대한 한국 교회 청년들의 관심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려인 및 러시아인을 통한 사역은 효율적인 북한선교방안인데, 청년교류사역은 이와 같은 간접적 선교 사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한국에서의 지속적 연계

현지에서의 사역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연해주 현지교회 및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sup>34</sup> 북한에 대한,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마음 품기가 온전히 되고 또한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기선교 후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연계와 2, 3차 단기선교의 계속적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의 유지 또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2. 동원 및 지속적 중보기도

단기선교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현지의 사역현황 및 필요를 한국교회에 보고하는 것은 동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지역연구책임자는 보고와 동원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느끼거나 들은 기도제목을 정리해서 전파하는 것도 단기선교팀이 현지 선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단기선교팀원들의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4 2007년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에서 발간한 선교지역연구보고서의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3기 훈련팀이 작성한 조·중집경지역에서의 북한선교 사역현황과 단기선교 사역방안 보고서에서 단기선교팀이 북한 사역자와 협력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참고하였다.

### 3. 한국 단기선교팀이 연해주 북한 사역자와 협력 시 주의 해야 할 점<sup>35</sup>

한국 단기선교팀이 연해주 거주 북한 사역자와 협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단기선교 전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필드에 나가기까지 현지 사역자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역자와 단기팀의 비전을 나누고 사역자와 단기팀 간의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선교지에서는 현지 사역자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지 사역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단기선교팀의 계획과 주장만을 내세울 경우 현지 사역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현지 사역자와 갈등만 낳을 뿐이므로 사역자와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북한선교에 있어서 사역의 보안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단기선교 후 보고 시 사진 및 영상의 공개를 지양하는 것이 좋고 만약 공개할 경우 잘 선별하거나 공개여부에 대해서 현지 사역자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러시아 연해주지역은 아직까지 선교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적 측면은 반드시 지키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사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되는지의 여부를 사역자님이나 당사자에게 꼭 물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지 사역자와 지속적인 교제 및 사역 연계가 요구된다. 리서치나 사역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후에 어떤 리서치나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을 마친 후에도 장기 사역자와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35 2007년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에서 발간한 선교지역연구보고서의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3기 훈련팀이 작성한 조·중집경지역에서의 북한선교 사역현황과 단기선교 사역방안 보고서에서 언급한 단기선교팀이 북한 사역자와 협력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참고하였다.

##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러시아 연해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선교의 현황 및 북한선교에 있어서 고려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 단기선교팀과의 협력 방안과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북한선교에 있어서 연해주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선교활동에 대한 조사와 단기 선교팀과의 협력이 부족 했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러시아 연해주에는 약 12,000여 명의 북한인이 노동자와 유학생의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약 200여 명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북한인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지역에서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선교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직접적 사역으로는 제 3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인 또는 외국인들이 북한을 직접 왕래하며 사역하는 북한 내 선교 사역과 고려인이나 러시아인들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북한 외 선교사역을 들 수 있다. 간접적 사역으로는 고려인을 북한 사역자로 키워내는 고려인 양육사역과 북한을 마음에 품은 러시아인을 통한 사역,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통한 사역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역의 형태 중에서도 고려인을 통한 북한선교사역은 매우 효과적이다. 연해주 거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인의 시각이 다소 부정적이고, 이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려인들과 재러 북한인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적·사상적 동질감과 외모상 친밀감은 북한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 된다. 연해주 내 북한사역과 관련한 한국 단기 선교팀의 협력방안으로는 문화사역과 교회사역, 농장사역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단기 선교팀의 사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고려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현지 장기 사역자와 한국교회 사이의 통로로 사용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 이후의 지속적인 연계와 동원 및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장기 사역자와의 협력과 지속적인 연계, 기도 및 동원은 단기선교팀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북한선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모여있던 한민족은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로 흩어졌고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민족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 주셔서 한민족은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사명을 갖게 하셨다. 이러한 한민족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

해서는 남·북한과 조선족·고려인을 포괄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한민족 정체성 회복,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과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해 본다. 훗날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사상적 완충 역할을 담당할 조선족과 고려인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러시아 현지 사역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간 중국 조선족에 대한 선교적 접근과 양육에 많은 물적·인적자원을 투자했지만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들이 갖는 지리적·문화적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여 접근, 투자가 많이 부족했다. 따라서 고려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현재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 구상으로 조선족·고려인과의 연합적 선교전략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국제지역연구소(2007), 선교지역연구보고서, 포항: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기독교문사(2000), 기독교 대 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윤여상(1999), 재러시아 북한 난민의 실태 및 보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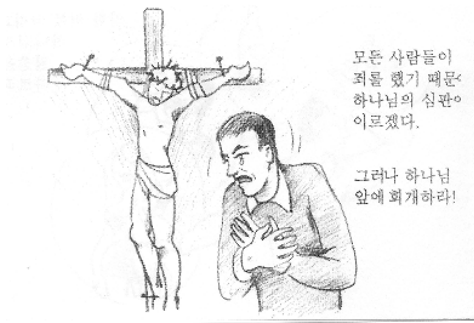
정근식·염미경(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고려인돕기운동본부, [www.koreis.com](http://www.koreis.com)

부록1. 북한 전도책자(상)



부록1. 북한 전도책자(하)



회개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요!  
저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불행과 악한 것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 주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  
이제 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